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년월일	2006. 8.

의 결 사 항

구미공단 3단지 내 대형마트 입점 반대를 위한 건의문(안)

제안년월일	2006. 7. 28
제 안 자	김영호 의원 외 9인

구미공단 3단지 내 대형마트 입점 반대를 위한 건의문(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6. 7. 28.

제 안 자 : 김영호의원외9인

1. 주 문

- 구미공단 3단지 내에 대형 마트가 입점 될 경우 심각한 교통 혼잡과 소상공인들의 상권 박탈로 인해 구미 경제가 위기에 처해 질 것이 자명하여 (주) 신세계 이마트의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과 같이 요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6년 6월 1일 (주)신세계 이마트에 구미시 임수동 92-28번지 일대 33,305㎡를 매각함에 따라 구미공단 3단지 내에 대형 마트 설치가 유력한 상황이므로
- 이는 구미공단 3단지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 등으로 입주 업체의 물류 수송 등 생산 활동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는 39만 구미 시민의 뜻에도 어긋나는 처사로서
- 또한 기존 3곳의 대형마트가 성업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 마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 재래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은 상권을 상실하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것이 명약관화 하므로 대형마트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며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건의문을 채택코자 함

3. 참고사항

- “붙임” 건의안 참조

「 구미공단 3단지 내 대형마트 입점 반대를 위한 」

건의문(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6년 6월 1일 (주)신세계 이마트에 구미시 임수동 92-28번지 일대 33,305㎡(10,074평)를 매각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대형마트 설치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구미공단 3단지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 등으로 입주 업체의 물류 수송 등 생산 활동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는 39만 구미시민의 뜻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다.

또한 기존 3곳의 대형마트가 성업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마트가 들어 서게 될 경우 재래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은 상권을 상실하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대형마트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I. 구미공단 3단지에는 삼성전자, LG전자, LG필립스LCD 등 국내 대표적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다, 최근 삼성전자가 3천억원 규모의 구미 모바일 R&D 강화를 위한 기술동 건립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형마트가 입점될 경우 향후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여 교통정체는 물론 물류비용 증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구미시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교통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할 것을 경상북도에 요구한다.

- I. 대형마트의 구미공단 3단지 내 입주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 I. 교통대란과 경제대란을 몰고 올 대형마트의 입점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전에 차단할 것을 구미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 I.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유통업체에 부지를 매각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역행하여 시민의 여망을 저버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각성하고 국가산업단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전면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I.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상권을 박탈당하여 구미 경제 전체가 몰락 위기에 있다. 따라서 (주) 신세계 이마트는 기업의 이권만 챙길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할인점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 시민의 힘을 모아 (주) 신세계 이마트 상품 불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 8. 7.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